

8월의 기도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 1.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5. 올 해 하반기에도 우리 삶의 계획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우리 삶의 참된 희망

나치의 무서운 독가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플랭클 박사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고 말하며 그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삶의 희망'을 꼭 잡고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600만명이 독가스를 마시고 죽을 때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 세계가 희망을 가졌든, 못가졌든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포르투갈에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갓길에 캄캄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진정으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듯이 마음이 상쾌해지고 희망이 생기고 살아갈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이 생기니까 용기와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희망이 있든 없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만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므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로역정」으로 유명한 존 번연은 "만약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아래 내 몸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아무리 지어서 세상이 버린 죄인 괴수도 용서하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물진 인생이 되어 버림받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성령 받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독한 병이 들어서 의사가 다 내버린 사람도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버림받은 사람도 다시 재기할 희망이 있습니다. 지옥 갈 인생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좌우간 예수님은 희망의 원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전도자나 선각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에 참된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DCEM 성회안내

2015년 9월 21일에 일본 동경 나카노 제로대홀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동경대중집회 성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호, 김정환, 박예림,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목사, 안희순, 원소선, 이규현, 이준호, 이형춘,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Subash Rani, 032) 465-****,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꿈과 희망의 축복성회' 은혜와 기적의 시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할 것" 강조



DCEM이 주관하고 순복음동북아일본총회 동경지방회가 주최한 2015년 꿈과 희망의 축복성회가 지난 7월 22일 순복음동경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성회에는 동경지방회 목회자들은 물론 인근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이 참석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키 시게마사 담임 목사가 통역에 나선 성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을 근거로 설교하며 4차원의 영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고 의지하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잘 되길 원하신다"며 아브라함이 천막 안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주 안에 거룩한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질 것을 강

조한 조용기 목사는 꿈을 갖고 묵회하며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교회로 성장시킨 간증을 전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긍정적인 꿈과 생각,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선언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지게 된다"고 선포했다. 설교 후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의 인도로 병 고침과 문제 해결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순복음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이 뿌리를 깊게 내린 순복음동경교회 성도들은 이번 꿈과 희망의 축복성회를 통해 믿음의 전진을 계속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엔도타카시 목사(순복음후나보리교회), 고미선 목사(순복음키요세교회), 오민우 목



사(순복음카사이교회), 황우태 목사(순복음하찌오교회), 현건효 목사(순복음후사교회), 우창희 목사(순복음야마토교회)가 순서를 맡아 예배에 은혜를 더했다. 한국에서 김종복 장로(외무경조친목위원장)도 참석했다. 한편 순복음동경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특별축복성회가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9월 21일 나카노 제로대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뢰게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인 포춘(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 CEO들의 영적 멘토인 헨리 블랙커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랑이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도자를 택하여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꿈을 가져야만 되고,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꿈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 꿈이 성공으로 이끈다

이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기 위한 제일 첫째 조건이 개인이든 조직이든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경영협회에서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했던 로린 울프는 성경 속의 수많은 리더들의 지혜를 비즈니스에 접목시켜 <위대한 리더십의 최강자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목표가 없는 리더들은 아무리 재능이 많이 있었어도 인생에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존스 그룹의 회장이며 <최고 경영자 예수>의 저자인 로리 베스 존스는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과 성공한 기업들은 모두 뚜렷한 꿈과 목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꿈을 가진 인생은 꿈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련이 다가와도 꿈을 통해서 시련을 극복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전진함으로 결국에는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 주십니다.

꿈은 이 씨앗과 같습니다. 꿈이라는 씨앗 속에 위대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꿈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의 껍질을 터트리고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또 꿈은 돌아 오르기 위해서 그 속에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고, 마침내 성공이라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들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씨앗을 가슴속에 뿌리면, “꿈 같은 소리 무슨 힘이 있냐?” 하지만 꿈은 굉장한 힘이 있어 씨앗 속의 에너지가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고, 땅을 뚫고 열매를 맺는 힘이 있는 것과 같이 꿈이 껍질을 벗기고 장애물을 밀쳐내고 푸른 나무가 되어 일어나면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 꿈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

꿈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조지 바나가 미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조사했는데, 불과 2%정도만 꿈을 가진 지도자였고, 나머지 98%는 평범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꿈을 가진 그 2%의 사람들이 지금 미국 교회를 대표하고 미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돈이나 권력, 학식은 아무나 가질 수 없을 지라도 꿈은 누구나 다 꿀 수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리더들은 모두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20대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마음에 꿈이 영롱했습니다. 매일같이 내 꿈에 내가 취해서 숨이 헐떡였습니다. 언제나 현실의 내 자신을 바라보면 형편없는 개척전도자였지만 저는 늘 “조용기! 너는 한국에서 제일가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온 천하만국에 나가서 사도바울 선

생처럼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언제나 꿈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꿈은 그렇게 가져도 실력이 그렇게 없어서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공부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집에는 구하기 힘든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선교사들이 가져온 책을 모두 읽고 또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꿈이 있으면 고통이 다가와도 고통을 이기고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게 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지도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말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자매 한 분의 간증 편지를 받았습시다. 나이 30대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절름발이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다 세상을 뜨고, 어머니도 세상을 뜨고, 형제들은 거의 다 그 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포기했으나 이 자매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낫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건강하게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감사하고 또 입으로 계속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아픈 것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것을 적어서 세계 편지로 보냈기에 제가 읽어보고 그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도 말고, 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복음동경교회 2015년 꿈과 희망의 축복성회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할 것” 강조



지난 7월 22일 순복음동경교회(담임목사 시가끼 시게마사)에서 개최되었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축복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의 간증이 줄을 이었다.

모리무라 미카 성도는 “조용기 목사님의 꿈과 희망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다”고 했고, 엔도 마사카즈 성도는 “오늘 말씀을 듣고 순복음동경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일본 일천만구령이 이뤄질 것을 꿈꾸고 믿게 됐다”고 말했다. 스즈키 에리 성도는 “지난 5월 조용기 목사님의 성회 때 대퇴골이 고침 받는 기적을 체험했다. 이번 성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노무라 사다노리 성도는 “30년 전에 목사님 메시지를 처음 듣고 병을 치유 받았는데 이번 성회에 참석해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게 돼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이날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들도 많았다. 하치 아키코 씨는 “조용기 목사님의 저서 ‘4차원의 영성’을 읽고 감동을 받아 성회에 참석해 꿈과 희망을 배우게 됐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감격을 전했다.

순복음동경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찬양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교회의 3대 비전으로 세웠다. 또한 주일예배 출석 3000명 성도, 지구역장 200명, 지성전의 부흥을 3대 목표로 세우고 전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

순복음동경교회는 일본 일천만구령운동의 중심이자 전진기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담임을 맡게 되면서

기존 한인 성도들과 더불어 일본인 성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담임목사가 직접 성도들을 안수하며 기도하는 새벽기도의 열기도 뜨겁다. 굿피플 선교회를 창립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꿈과 희망을 잃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을 찾고, 성도들이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 참된 제자가 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새로워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복음동경교회에는 긴시쵸, 카와사키, 닛뵈리, 후지사와의 4개의 지성전이 있고 아키가와기도원, 순복음신학대학이 있다.

동경 중심으로 일본 복음화 주력

순복음동북아일본총회 동경지방회



동경지방회 주최로 열린 첫 성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지난 7월 22일 순복음동경교회(담임목사 시가끼 시게마사)에서 개최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축복성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에 4차원의 영성을 통한 꿈과 희망을 다시 심었다. 동경지방회 회장 황우태 목사(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는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 일본에 심겨진 복음

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일천만구령운동을 통해 하나님 부흥의 때를 주시면 일본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복음동경교회는 일본의 장자교회이다.

지역적으로도 순복음동경교회는 복음의 황금어장이자 영적 부흥의 중심지이다. 동경과 인근 지역인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에 4000만명이 살고 있다. 일본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것이다. 동경은 일본 일천만구령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순복음동경교회가 100만 성도로 부흥하고, 일본에 1000만 인구가 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동경지방회의 12개의 교회, 28명의 목회자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